

현실을 포획(包懷)하는 상징의 세계

— 황순원 장편소설 『별과 같이 살다』론 —

방민호

1. 문제제기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정음사, 1950)는 황순원 작품세계의 초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과도적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때 황순원의 초기란 습작기적 특성을 보이는 詩作 활동에서부터 『늪』(1940), 『기러기』(1951), 『목넘이 마을의 개』(1948)에 이르는 단편소설집의 간행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초기와 『카인의 후예』(1954)를 포함한 일련의 장편소설들로 대변되는 후기 사이에는 상당한 소설적 변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곤 한다. 즉 초기 작품들이 『放歌』(1934)와 『골동품』(1936)과 같은 시집에서 엿볼 수 있는 서정성과 낭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카인의 후예』 이후의 작품들은 소외와 고독과 같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주제로 하거나 현실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황순원의 작품세계에 대한 구체적 규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의 작품들의 양적인 풍부함과 질적인 변화폭으로 인하여 평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평자들은 황순원이 명확히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세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 예로 곽종원은 황순원의 문학세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황순원은 <휴매니즘>도 <레얼리즘>도 <니힐리즘>도 또 기타 어느 <이즘>도 그의 문학 위에 갖다 써우기에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부적당하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의 문학에는 이 모든 <이즘>들을 한목 갖다 써올 수 있다는 말도 된다. <휴매니즘>이나 <레얼리즘>이나 그 밖에 여러 <이즘>들을 충화한 그 <이즘>을 그의 문학 위에 갖다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그 범박함에도 불구하고 황순원의 작품세계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8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관점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특이한 것은 이태동¹⁾이나 김치수²⁾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황순원 문학의 근원을 자연주의와 낭만주의의 융합³⁾(자연주의와 상징주의의 혼합⁴⁾) 혹은 순수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⁵⁾ 등 대체로 서로 대립하는 두 경향의 공존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보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⁶⁾

‘별과 같이 살다.’를 황순원 소설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지어 볼 때, 따로 떼어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⁷⁾ 이 작품은, 앞에서 지적한 두 경향

- 1) 곽종원, 황순원론, 문예 1953.1, p 25.
- 2)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황순원론, 현대문학 1980.11.
- 3) 김치수, 소설의 사회성과 서정성-‘별과 같이 살다.’를 중심으로, ‘말과 삶과 자유.’(문학과 지성사, 1985).
- 4) 이태동, 앞의 글, p 5.
- 5) 이태동, 같은 글, p 9.
- 6) 김치수, 앞의 글, p 53.
- 7)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황순원 소설을 민담이나 이야기와의 연관속에서 파악하여 주로 민족적인 형식의 소설로만 파악하는 김윤식이나 홍정선의 견해는 다소 특이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김윤식, 민담, 민족적 형식에의 길·황순원의 ‘땅울림’, 소설문학 1986.3 및 홍정선, 이야기의 소설화와 소설의 이야기화(‘말과 삶과 자유.’) 참조.
- 8) 김치수, 소설의 사회성과 서정성 - ‘별과 같이 살다.’를 중심으로, ‘말과 삶과 자유.’(문지사, 1988).
김 현, 소박한 수락, ‘황순원 연구’(문지사, 1985).
김인환, 인고의 미학, ‘별과 같이 살다. 카인의 후예’(문지사, 1985).
이동하, 과열의 길과 구원의 길 - ‘별과 같이 살다.’에 대하여(문학사상, 1988.3).

의 결합을 특히나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인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흔히 매우 개인적 취향의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황순원의 작품에서 역사적 국면들이 여러 모로 변형되고 결합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

그는 황순원 문학의 두 경향을 개인적 취향과 역사적 관심으로 요약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황순원 소설의 본질 규명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별과 같이 살다』는 그 과도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황순원 문학의 본질을 규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자주 함께 논의되는 『카인의 후예』와 이 작품의 차이를 통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카인의 후예』는 해방 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월남하고(1046.5) 이어 전쟁을 겪어야 했던 작가의 전기적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작품이다. 따라서 여기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위협>과 <극단적인 생활의 위협>을 통해 다져진 짙은 소외·허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¹⁰⁾ 그 결과 이 작품엔 『별과 같이 살다』와는 달리 황순원 문학의 두 축 중 특히 현실추구적 경향(혹은 역사적 관심 등)이 두드러진 가운데, 다른 한 축은 많이 훼손되어 있다. 즉 초기소설이 가지고 있던 낭만주의적이고 상징주의적인 경향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별과 같이 살다』는 이 두 축이 상당한 긴장을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황순원 문학의 본령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주의적 성격과 상징주의적 성격이라는 두 문학적 범주에 입각해 이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사실주의적 성격이 황순원의 현실추구적 경향을 대변하는 범주라면 상징주의적 성격은 작가의 낭만주의적이고 현실초월적인 경향을 요약

9) 김인환, 앞의 글, p 469.

10) 김현, 앞의 글, pp 99-100.

해 주는 범주가 될 것이다. 또 이 양 범주는 황순원 문학의 서사적 경향과 서정적 경향을 각각 특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들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 양 범주가 작품 속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분석하거나 혹은 이들 두 범주가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대한 검토는 이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자 황순원 문학의 본질을 탐색하는 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사실주의적 측면에서 본 『별과 같이 살다』

그 이야기적인 문체 및 형식상의 특성을 일단 접어둔다면¹¹⁾, 『별과 같이 살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일종의 일대기라는 점이다.¹²⁾ 이 작품은 여주인공 곱녀가 스무살이 될 때까지 겪는 사연들을 12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이고 연대기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곱녀의 행적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곱녀라는 한 소작녀의 기구한 운명인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주목을 요하는 점은 소작인인 곰녀의 아버지가 지주 김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주탄광으로 돈 벌려 가서 죽음을 당하는 대목에서부터, 해방을 맞아 곰녀가 만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호하는 단체인 民護團에 가담할 때까지에 이르는, 작품 전체를 관철하는 작가의 역사의식과 현실옹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일제말기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는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면밀한 <史的 기록>¹³⁾으로 나타난다. 작품의 각 장은 각각의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고 또 이를 구체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다루게 된다.

12) 이는 포스터의 연대기 소설 개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별과 같이 살다』는 <엄격한 구성과 자의적이며 산만한 진행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연대기 소설의 요건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는다(조남현, 소설원론, 고전원, p.298).

13) 김인환, 앞의 글, p.469.

- 1-2장 : 지주-소작관계, 간도 이민, 탄광 돈벌이
- 3-4장 : 금광붐, 친일지주의 득세, 토지의 집중현상
- 5-9장 : 중일전쟁, 이북의 병참기지화, 창씨개명, 태평양전쟁
- 10-12장 : 방공연습, 해방, 귀환동포, 적산처리, 사회주의세력 등장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가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엄격한 의도 아래서 집필되었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곰녀의 일대기라는 형식 속에서 1920년대부터 해방직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주요한 역사적 계기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무척이나 집요하며 예리하다는 사실인데, 이는 특히 3-4장과 5-9장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먼저 3-4장을 보자. 샘마을의 전통적인 대지주 김만장의 큰 아들이 금광에 미쳐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팔아버린다. 그런데 이를 산 것은 군수를 사위로 둔 신홍지주 한명인이다. 그는 원래 점장이였지만 고리대를 놓아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는 김만장의 토지까지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이후 7장에서 향나뭇골 아이인 산옥이의 회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듯 한명인은 친일관료인 사위를 앞세워 김만장을 협박함으로써 욕망을 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지대율의 하락과 토지의 집중현상이 일반화된 당시의 사정>¹⁴⁾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라, 동시에 전통적인 봉건적 지주에 대해 고리대와 친일관료와의 결탁을 통해 부상한 신홍지주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당시 지배층의 구조적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1920년대를 통해 진행되는 일제하의 이러한 역동적 과정을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 속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당대의 객관적인 현실을 작품내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주의를 문제삼을 수 있다면, 『별과 같이 살다』의 면밀한 현실 주시는 이 작품을 사실주의적인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다.

5-9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곰녀가 대구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인신매매법의 괴임에 빠져드는 과정은 30년대 중반을 전후

14) 김인환, 앞의 글, p 470.

로 한 조선의 부분적인 산업화 과정을 의식하지 않고는 그려내기 힘든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와 같은 맥락에서 평양의 사창가 풍경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아주 인상적이다.

싸움은 그믐께가 되면 한총 찾고 심해지곤 했다. 이때는 거의 밤마다 이 아랫거리에 나타나는 사내들은 물론, 이런 때만 뵈는 사내도 많이 모여들었다. 이런 때만 뵈는 사내들은 대개가 무슨 작업복같은 걸 입었다든가 몸에서 무슨 기계기를 냄새를 풍기는 사내요 사내애들이었다. 이런 사내들로 해서 거기에는 여태까지보다 더 지독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마치 그것은 그들이 이런 데라도 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벌여놓은 싸움인 듯 했다.¹⁵⁾

사창가는 가장 싸게 성적 상품을 매매하는 곳이며 따라서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그믐께만 되면 뵈는 사내들이란 노동자들이다. 중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이북지방이 일본의 병참기지화정책에 의해 부분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자들이 도시생활의 가장 하층적인 부분을 형성하면서 월급날 즈음이 되면 한달동안의 피로함을 씻으러 사창가 부근으로 몰려들어 찾은 싸움을 벌인다고 묘사하고 있다. 평양으로 간 곰녀의 낯설은 눈을 통해 변모하는 30년대 조선의 가장 병적인 부분을 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통상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취향의 작가로 알려진 황순원을 사실주의적 시선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이 이 작품에서 단지 배경으로만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물론 이러한 배경을 처리하는 작가의 수법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들만으로 「별과 같이 살다」를 사실주의적인 혹은 사실적인 요소가 다분한 작품이라고 규정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 이러한 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후경들을 배경으로 하여 사유하고 행동하는 인물들의 성격이 과연 사실주의적인가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

15) 「별과 같이 살다」(문지사, 1985), p. 98.

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지주 김만장이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 김만장은 가장 구체적이고 박진감있게 형상화된 인물이다. 그는 <잘게 삼박거리는 노랑눈>¹⁶⁾을 가지고 있다. 이 외양묘사는 그의 탐욕스럽고도 호색적인 기질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기제이다. 곰녀의 아버지 곰이가 구주탄광에 간다고 했을 때도 김만장은 그를 만류하며 수없이 눈을 삼박거린다. 그가 곰이를 만류한 것은 오직 곰이가 그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소작인이다. 그의 빚을 지지 않은 유일한 소작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러한 눈 삼박거림은 어머니를 여의고 배나뭇집 할머니와 함께 사는 열두살 된 곰녀를 보았을 때도, 토지를 잊고 자포자기한 심정 속에서 지내다가 문득 곰녀를 겁탈할 때도 똑같이 반복된다. 이러한 외양묘사에 어울려 빚어지는 그의 인간됨은 탐욕적인 부재지주의 전형, 그것이다. 그는 소작인들로부터 가혹하게 소작료를 거두는가 하면, 소작인 개똥이아버지의 누이를 첨으로 거느리며, 군수의 협박이 두려워 토지를 한명인에게 팔아넘기고는 환각에 시달리고 주색에 정신없이 빠져들 정도로 땅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대지주로서의 자존심이 일개 점장이었던 신흥지주 한명인에게 여지없이 짓밟히는 광경이야말로 김만장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집약된 부분이다.

김만장은 가슴이 확 달아 올랐다. 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수작이냐. 비록 오늘 형편에 의해 조상 땅을 제놈에게 팔기는 하되 아직 저같은 놈하고 사돈을 맷을 만큼 가문이 영락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김만장은 더 참을 수가 없어 한 옆에 밀어 놓았던 서류를 고려다 계인을 마저 찍기 시작했다. 그 손이 아까보다도 더 멀렸다. 인감증명원에 도장을 찍을 차례에 가서 한명인이 또 김만장더러, 아직 손이 멀리는 것을 보니 약주가 부족한 모양이라고, 소리내어 웃고 나서는 김만장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는 돈보따리를 풀어 다발로 된 돈뭉치를 김만장 앞에 밀어 놓고나서, 남은 돈 중에서 십원짜리 다섯 장을 집더니 산옥에게로 던지며, 저고리나 한 감 떠입으라는 것이었다. 김만장은 돈을 대충 세는 등 마는 등 갖고 온 보자기에 싸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명인이 자동차를 부르겠다는 것도 들은 체 만체 그곳을 나와 버렸다. 뒤에서 한명인이 산옥이더러 술 따르라는 말소리가 들렸다.¹⁷⁾

16) 앞의 책, p 20.

17) 앞의 책, p 125.

여기서는 출신이 다르고 따라서 치부의 과정이 상이한 두 지주계층의 대립과 그 속에서 전통적 지부가 열세에 처하지 않을 수 없는 1930년대 조선의 <전형적 상황>이 김만장의 개인의 운명 속에서 아주 실감있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사실주의의 핵심범주가 전형성이라는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 이 대목은 일련 개념에 접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열로 향하는 하강의 유형>¹⁸⁾에 속하는 산옥 또한 전형적인 인물로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옥은 한명인 집의 하녀였다. 그녀는 군수 가 아직 한명인의 사위가 되기 전, 그의 수청을 들라는 명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 대구 달성관의 작부가 된다. 그녀는 귀돌이라는. 벙어리지만 미남자인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후 그녀는 이미 그녀의 거처를 알고 있던 명인이 준 돈을 귀돌이에게 보내지만 그는 <자기는 그 동안 빚을 다 갚았으니 이 돈을 돌려보낸다는 말>과 함께 돈을 고스란히 돌려 보낸다. 이 사랑의 좌절은 이후 창녀가 된 산옥의 자살과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산옥이 사랑에 좌절하게 된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명인에게로 소급된다. 한명인은 귀돌이의 지주이기도 하며 귀돌이는 아버지때부터 한명인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산옥에게 군수의 수청을 들라 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도망가게 한 것도 역시 명인이다. 더구나 귀돌이가 산옥의 오십환 돈을 돌려 준 것은 그의 말대로 빚을 다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산옥의 사랑을 거부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술집 여자가 되어 있는 산옥의 '불결한' 사랑과 명인으로부터 나온 돈을 거부했던 것이다. 따라서 산옥이 그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순결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불가능하다. 이미 그녀는 폐손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빚을 다 갚았다고? 다 갚긴 멀다 갚어, 이 돈이 더럽단 말이재?> 하는 절규와 함께 환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 공중에 뿌리고, 그녀가 자진해서 선택한 것은 평양 아랫거리 청루의 창녀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 모든 이들이 희망을 갖고자 할 때 그녀는 그만 자살

18) 이동하, 앞의 글, p. 216.

해 버린다. 청루로부터 해방되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란 사랑의 좌절과 자신의 불결함을 확인하게 하는 곳에 다름 아니었고, 주심이를 따라 민호단에서 일하는 것도 그녀의 체손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순수성에 대한 너무나 예민한 자의식>¹⁹⁾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길은 자기정화로서의 자살, 곧 강물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²⁰⁾ 이렇게 볼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산옥의 운명을 결정지운 요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 한명인이라는 지주로 소급되는데, 이는 현실을 보는 작가의 시선이 지주-소작관계의 갈등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번갈아 하녀(곰녀)를 겁탈하는 아버지(김만장)와 아들(둘째아들), 이를 알고는 행여나 누가 알까 곰녀를 서울로 쫓아버리는 주인마누라, 일확천금을 쫓아 금광에 미쳤다가 가산을 탕진하고는 만주로 홀쩍 떠나버리는 큰 아들의 모습 등을 통해 드러나는 김만장 집안의 도덕적 타락과 무기력함이라든지, 아이를 낳고도 빼앗겨 버리는 흉도의 모습이나 적산을 불하받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자 곰녀를 버리고 마는 하르반의 행태들을 묘파하는 작가의 시선은 실로 엄정한 사실주의자의 그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통해 볼 때 필자는 『별과 같이 살다』가 일단 사실주의적 성격이 다분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작품은 황순원의 역사 및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천착의 결과인 것이다. 지주집안 출신이면서 해방이 되자 곧 사회주의의 위협을 받아 월남하기까지 한 작가가 소작민들이나 창녀와 같이 사회의 하층부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만큼 편집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은 작가의 사실추구정신이 그만큼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별과 같이 살다』를 전형적인 사실주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분명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곰녀를 분석해봄으로써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을 통해서 가장 비현실적인 인

19) 앞의 글, p. 218.

20) 『별과 같이 살다』, p. 197 산옥의 유서 부분 참조.

물이 바로 곰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곰녀를 형상화한 작가의 의도야말로 이 작품의 주제로 직결되는 요소가 된다.

3. 『별과 같이 살다』의 상징주의적인 본질

주인공 곰녀는 작품 전체를 통해서 극히 인고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그녀의 인고적 성격은 이미 곰녀 어머니가 개가해 들어간 집의 전처소생 딸과의 싸움 장면에서부터 예견된다. 전처의 딸이 먼저 트짐을 잡아 삽시간에 곰녀의 뺨에 손톱자국을 여러 군데 내건만 그녀는 전처의 딸의 가슴을 떠밀어내기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김만장의 집에 들어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그녀는 3년동안 보통여자 두 뜻을 하며 고생을 감내하지만, 이것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녀가 사창가에 팔려나갈 처지에 이르렀을 때이다. 이미 술집을 한 번 돌아 다시 매매꾼의 집에 오게 된 그녀가 못생긴 외모 때문에 잘 팔리지 않게 되자 주인은 그녀에게 일을 시켜 이자라도 뽑으려 하고, 그녀는 시키는 대로 일을 몸을 아끼지 않고 센 힘을 발휘해 일을 하는 것이다. 어느날 밤 그녀는 매매꾼들의 이야기를 우연찮게 엿듣게 된다.

자기더러 받으려는 소같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소같은 자기가 여기서 있다는 걸 어둠 속 사나이들이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곰녀는 이번에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곰녀는 방안의 애들이 모두 자기보다는 잘나 보였다. 이 애들뿐만 아니라 세상사람이 모두 자기보다는 잘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는 못생긴 값을 해서라도 받는 소처럼 증을 부리거나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다음날부터 곰녀는 한층 더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했다.²¹⁾

이러한 고통의 감내는 12장에서 하르반의 베림을 받은 곰녀가 주심이한 테 가리라 결정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지속된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 그녀

21) 『별과 같이 살다』, p. 91.

에게는 어떤 외면적, 내면적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갈등이란 소설내적 인물의 현실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갈등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모순들의 표현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이 것에 인물이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 하는 것이 곧 그 인물의 현실적 성격을 결정지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갈등이 축적되고 심화됨에 따라 그 인물의 성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곰녀에게서는 그런 의미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곰녀는 그녀를 둘러싼 환경과 적극적인 갈등관계에 있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고는 환경의 변화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대응방식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산옥에게서 볼 수 있는 훼손된 가치를 향한 몸부림이나 주심에게서 볼 수 있는 해방 후의 고양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다. 작가의 주제의식을 담지하고 있어야 할 곰녀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물이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별과 같이 살다』가 전형적인 사실주의 소설에서 거리를 두는 부분이다. 여기서 곰녀라는 인물의 상징주의적 성격이 드러난다. 일단 곰녀의 성격을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곰녀가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 12장에 이르러서이다. 그녀는 자살해 버린 산옥이를 떠올리며 <불쌍한 산옥이, 불쌍한 산옥이>를 연신 되뇌이다가 <퍼뜩 이 불쌍한 산옥이, 불쌍한 산옥이, 하는 말소리가 저도 모르는 새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²²⁾ 느낀다.

그러다가 곰녀는 깜짝 놀라고 만다. 이 떨리는 가슴 속으로부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빙신, 빙신, 하고. 그것은 산옥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주심이 언니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나 기실은 산옥이의 목소리도 주심이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곰녀 자신의 가슴 속으로부터 속삭여진 소리였다. 이 소리가 이어 속삭이는 것이다. 주심이언니한테로 가그라, 주심이언니한테로 가그라.²³⁾

이러한 깨달음은 참으로 오랜 인고와 고생 끝에 획득된 것이다. 그러나

22) 앞의 책, p. 214.

23) 앞의 책, p. 216.

황순원은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곰녀의 자각 및 뒤이은 민호단에 의 가입과 같은 이상주의적 결말을 위해 갈등을 설정하고 내면적 고뇌를 증폭시켜 온다든가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곰녀의 이러한 자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주의 작품을 읽어내는 방법과는 또다른 의미의 독법이 필요하다.

이때 주목을 요하는 것은 곰녀가 12장의 마지막 달에 가서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곰녀가 성년이 되는 만 스무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순환적 자연의 질서를 상징하는 자연스러운 장치이자 긴 겨울 끝의 봄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보다 중요한 것은 곰녀의 이름이 갖는 상징성과 이 작품의 제목에서 <별>이 갖는 상징적 의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곰녀의 이름은 작품 전체를 통해 수없이 변해왔다. 그녀는 태어나서 먼저 후남이라고 지어졌고 그 다음엔 그의 아버지 곰이처럼 곰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도시로 나오면서부터는 삼월이, 유월이, 복실이, 후꾸장, 후꾸꼬와 같은 이름을 차례로 갖게 된다.²⁴⁾ 그러나 작가는 항상 그녀를 곰녀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곰녀라는 이름이 오랜 고난과 人生流轉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그녀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상징적 장치임을 말해 준다. 이에 반해 곰녀의 다른 모든 이름은 대구에서 서울, 서울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곰녀의 삶 속에서 그녀의 순박함과 인고적 미덕을 위협하는 현실을 의미하게 된다. 이 이름들은 곰녀를 둘러싸고 있는 근대사회의 제반 풍경들을 함축하고 있다. 대구, 서울, 평양과 같은 도시는 샘마을이라는 곰녀의 고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철저히 근대적인 곳이다. 이 낯선 곳을 유전하면서, 곰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본질이나 내적 요구를 거의 자각하지 못한 채 수난의 삶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곰녀는 자신의 타고난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부지런함과 인내, 남을 위하는 순박한 자세를 잊지 않는다. 이러한 곰녀의 미덕은 그녀가 특히 인생살이의 최저한계인 사창가를 전전하면서 더 빛을 발한다. 곰녀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며 다른 이름들은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과 함께 변화하는 현상이다.

24) 앞의 책, 하르반과의 대화 부분, pp. 156-7.

바로 이점에서 곰녀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때 곰녀가 상징하는 것은 단군신화의 웅녀를 염두에 둘 때 우리 민족 그 자체가 된다. 『별과 같이 살다』는 단군신화의 모티프와 대체로 상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곰녀의 오랜 고난과 인내는 인간이 되기 위한 곰의 금기儀式에 대응하며, 곰이 웅녀로 화하는 마지막 순간은 바로 곰녀가 자신에 운명을 자각하고 민호단에 가입하려 가는 것이 된다. 이점에 주목하여 김현은 『별과 같이 살다』를 알레고리적이라 지적하고 있다.

곰녀의 한자 이름이 한민족의 모태인 웅녀라는 것을 부주인공(하르반-필자)의 입을 통해 구태여 밝힌 것은, 이 소설이 1947년에 써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곰녀가 한민족의 알레고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려는 작자의 의도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상 곰녀는 한민족의 오랜 수난에 알맞게 갖가지의 수난을 다 겪는다.²⁵⁾

이 외에도 이동하는 <곰녀의 일대기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적 성격을 펈다>²⁶⁾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실제로 이 작품은 곰녀의 삶을 통해 단군신화 및 일제말에서부터 해방직후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수난과 고통의 인내를 통해 참다운 삶을 획득하는 곰녀의 일대기가 갖는 의미는 우리 민족의 역사 행정의 보편적 원리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작품을 알레고리보다는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이 작품의 본질 설명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본다.

알레고리는 그 비의적인 본질상 사실주의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장르이다.²⁷⁾ 이에 반해 상징은 본질상 사실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²⁸⁾ 왜냐하면 상징은 <객관적 현실의 특수한 현상이……현상 속

25) 김현, 앞의 글, p. 108.

26) 이동하, 앞의 글, p. 221.

27) 루카치는 이런 의미에서 모더니즘이 알레고리적인 경향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우리 시대의 리얼리즘』, 인간사, 1986).

28) 이는 상징과 알레고리의 차이에 대한 괴테의 고전적인 언급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는 <앞의 방법은 알레고리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서는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에

에서 발견되는 본질(관념)과 함께 출발하여, 양자가 다 보존되는 효과적인 방법>²⁹¹이고, 이점에서 작품의 사실주의적 성격을 어느정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상징은 현상 속에서 발현되는 본질의 모습에 보다 촛점이 가 있다. 그리고 이점에서 상징은 <본질과 현상의 대립과 갈등을 통한 현실의 총체적 표현>이라는 지향점을 갖는 사실주의와는 모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점이 바로 <별>과 같이 살다²⁹²의 주인공 곰녀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주조하는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상징은 뭉타주나 병치로 특징지워지는 알레고리에 비한다면 사실주의와 보다 많은 친화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이 작품에서 곰녀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곰녀는 여타의 인물들에 비해 현저히 관념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갖고 있다. 장용학과 같은 전형적인 알레고리작가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철저한 관념 그 자체는 아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농촌공동체에 뿌리박은,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는' 소작인의 딸이다. 따라서 작가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완전한 보편적 원리를 상정하고 이를 곰녀로 인격화했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곰녀 속에서 우리 민족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작품이 본질적으로 상징주의적 경향을 갖는다는 사실은 그 <별>이 갖는 의미를 짚어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별>은 황순원의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그의 초기시 「꺼진 등대」는 그 한 예다.

별 없는 하늘에 번개가 칠 때나

대한 실례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후자(상징-필자)의 과정은 고유한 시적 본성이 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특수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특수한 것을 생동적으로 움켜 잡는 사람은 동시에 일반적인 것에 대해 지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상징과 알레고리의 차이를 정식화 하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상징의 개념이 얼마나 사실주의의 핵심개념인 전형과 유사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부카치가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글에서 알레고리보다 상징을 선호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벨라 키갈리활비, 「루카치미학 연구」, 이론과 실천, pp. 112-118).

²⁹¹ 벨라 키랄리활비, 앞의 글, p. 113.

고운 발빛이 잔물결 위로 미끌어질 때나
 한결같이 길잡이를 해주던 등대
 지금은 포탄 맞은 성벽마냥 힘을 잃었도다
 무너진 벽이며 깨어진 유리창이며 부서진 등일이며.³⁰⁾

황순원은 한 대담에서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간에 모든 창조적 예술은 시적인 근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경우 시란원초적인 생명의 호흡>³¹⁾이라 말한 바 있거니와, 「꺼진 등대」에서의 <별>은 그의 시적 근원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초기 시 습작기의 황순원은 낭만주의자였다. 『방가』에 실린 「나의 꿈」과 같은 대표작은 그가 전형적인 낭만적 동경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³²⁾ 이 시에서의 <꿈>은 곧 「꺼진 등대」에서의 <별>에 상응하는 것인 바, <별>은 시집 『방가』를 동경에서 출간하고 29일 동안 구류를 살아야 했던 민족주의 청년의 낭만적 소망이 집약된 시이이다. <별>이란 일제가 지배하는 환멸적 현실을 벗어난 이상적 시공간이며, 곧 황순원 문학의 <시적 근원>, <원초적인 생명>의 상징어인 것이다. 『별과 같이 살다』가 황순원의 초기 작품활동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면 이때의 <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이 <별>은 초기시나 이후의 단편소설 『별』에서의 <별>보다 훨씬 상징성이 높후한 용어가 되어 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친화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처럼 낭만주의에서의 동경과 그리움의 대상은 상징주의에서는 본질에 대한 향수로 나타나는 바, 『별과 같이 살다』에서는 상징주의에서의 본질에 대한 향수에 해당하는 그리움이 곰녀를 통해 자주 묘사된다.

문득 배나뭇집 할머니가 생각났다. 자꾸 그리워졌다. 곰녀가 이 김만장네 집에 온 이래 이렇게 배나뭇집할머니가 그리워져 본 적은 없었다. 자기는 배

30) 황순원, 시선집(문학과지성사, 1985), p. 15.

31) 대담: 유량적 근성과 시적 근원, 문학사상, 1972.11, p. 315.

32) 꿈, 어젯밤 나의 꿈./이상한 꿈을 꾸었노라./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생명의 꽃을 가득히 심고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노라//언제고 잊지 못할 이 꿈은/ 깨져 훑어진 이 내 머릿 속에도/ 굳게 못박혔도다./ 다른 모든 것은 세파에 스치어 사라져도/나의 이 동경의 꿈만은 길이 존재하니.

를 짜고 할머니는 물레질을 하고, 아무리 말려도 그냥 물레질을 하던 할머니, 이 할머니와 단둘이 다시 살아봤으면 이번에는 기이코 할머니에게 물레질을 한 시키고 자기 혼자 다 하리라…… 그리고 보니 할머니가 아직 그 쌈물가 코나큰 배나무 아래 오막살이에 살아계실 것만 같았다. 이런 밤이면 아주끼리 등잔불을 따사로이 켜고.”

곰녀의 그리움은 시간의 흐름에 노출되어 갈수록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녀의 원초적 생명력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은 그녀의 오랜 수난과 인고의 세월을 상징화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되는 장치일 뿐이다.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은 곧 작가의 민족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곰녀의 추억에는 지주와 소작의 갈등도 존재하지 않고, 빠빠지는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할머니와 손녀간과 같은 서로간의 사랑과 친화성만이 있을 뿐이다. 일제가 가져 온 근대적 병폐가 존재하지 않고, 지주와 소작의半봉 건적 갈등 또한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소망. 이것이『별과 같이 살다』의 심층에 자리잡은, 현실을 포획하는 상징주의적 주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 황순원의 낭만적 동경 또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회망이 해방을 통해 한층 낙관적으로 고양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별과 같이 살다』의 마지막 대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곰녀는 마음먹는 것이었다. 한 개비의 창작이나마 다 소중히 나르자. 자기가 몇 번을 위아래 거리를 오르내리는 한이 있다라도. 그 당장 자기보다 굽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녕 주십이언니가 거들어준다고 나서리라. 그것을 자기는 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곰녀는 혼잣속으로 중얼거렸다.³³⁾

결국 작가 황순원은 그 내성적 성향과 오랜 절제력으로 시를 통해서는 다른 시인과 같은 해방의 환희를 노래할 수 없었지만³⁴⁾ 해방을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 민족공동체의 소망을 곰녀의 헌신적 행위를 통

33) 『별과 같이 살다』, pp. 66-7.

34) 이동하, 앞의 책, p. 224.

35) 앞의 책, p. 217.

36) 최동호, 동경의 꿈에서 피사의 사탑까지(말과 삶과 자유), pp. 116-7.

해 형상화한 셈이다.

4. 현실을 감싸 안은 상징의 세계

그러나 상징성은 본질적으로 시적인 차원의 것이지 소설적인 차원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의 세계를 상징의 세계가 포획하고 있는 『별과 같이 살다』는 시적인 것과 소설적인 것이라는 두 이질적인 요소를 시적인 것의 우위 속에서 결합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 결과 이 작품은 본격적인 장편소설에는 미달한다는 평을 듣게 된다. 『별과 같이 살다』를 <장편소설이라고 하면 대체로 대중소설이나 통속소설이 되어 있는 이 땅에 그렇지 않은 장편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 고평한 조연현은 같은 자리에서 이 작품이 단편소설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이 최초의 장편은 그 성격이 장편적인 것이기보다는 단편적인 것이었다. 분량은 장편이었지만 위에서 지적한 전형적 단편작 가로서의 모든 특성이 그대로 이 작품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은 단편의 연결, 또는 긴 단편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특히 구성면에서 그러했다.”³⁷⁾

이는 『별과 같이 살다』가 본격적인 서사구조에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이러한 한계는 실상 한계라기보다는 황순원이 채택한 창작방법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작가는 사실주의적 성격과 상징주의적 성격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장치로서 설화체, 즉 민담을 작품 속에 도입한다.³⁸⁾ 민담이 <옛날 옛적에 어느 산골에>와 같은 시공간의 추상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민담 형식은 사실의 세계를 상징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강력한 수단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 사건들을 추급해 가면서도 이를 상징이 추구하는

37) 조연현, 황순원 단장, 『현대문학』, 1964.11, pp. 23-4.

38) 이동하, 앞의 글, pp. 214-5.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본질 및 가치와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 공간 개념의 추상화가 필요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지어 이 작품이 3인칭 제한적 시점을 택하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배후에 1인칭 서술주체인 '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는 이야기꾼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지적하는 이동하의 견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나'는 1장에서 <나는 여기서 잠깐 이 한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두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뒤에 이 사람이 우리 이야기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³⁹⁾라고 서술하는 부분이나 7장에서 <나는 여기서 산옥이가 한 이야기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좀 첨가하여 자세히 적기로 한다. 이것은 결코 산옥이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해서가 재미가 없다든지 해서가 아니라 실은 앞에서도 명인의 이야기를 약한 했지만 왜 그런지 그의 이름이 나오고 보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절로 더 쓰고 싶어진 것이다>⁴⁰⁾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외에도 배나뭇집 할머니가 꿈녀에게 해 준 <똥은 누지 마라> 이야기⁴¹⁾나 <콩쥐팥쥐> 이야기⁴²⁾ 등은 이야기꾼으로서의 '나'가 숨어서 이야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외에도 황순원은 사실주의적 요소를 상징주의적 세계 안에서 결합해 내기 위한 장치로서 여러 곳에 상징적 의미를 간직한 장면묘사를 배치하고 있다. 지주 김만장이 한명인에게 땅을 팔아넘기고 집에 돌아와 보게 되는 어린 시절의 환영은 그 한 예가 되겠지만 10장에서 해방을 앞두고 산옥이가 목격하는 이상한 장면은 그 전형적인 경우가 된다.

지금 막 수백 길의 뿐오안 먼지 바람이 선교리 한복판을 남에서 북으로 휙
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이 바람이 선교리 북단을 지나 채 꼬리를 감추기 전
에 남단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 북쪽으로 휙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어기 휙쓰는 먼지바람은 그게 먼지가 아닌 듯이만 느껴졌다. 무슨 연기이
거나 안개가 아니면 무슨 꽃가루 같은 거로만 느껴졌다. 먼지 강을 하나 새에

39) '별과 같이 살다.. p. 11.

40) 앞의 책. p. 108.

41) 앞의 책. pp. 49-51.

42) 앞의 책. p. 67.

두고 이런 조화가 일어나다니……

그러다가 생각난 듯이 고개를 거두던 산옥이는 또 뜻하지 않았던 대동강 물이 이상함에 다시 놀랐다. 유난히 파아란 물이었다. 가을철에는 아무리 여른 물이라도 이처럼 파아랄 수는 없었다. 이런 강물은 또 산옥이가 여태 이 대동강 물에서 대해보지 못한 강물이었다.”

이와 같은 상징적 장면의 지속적인 삽입이 본질상 현실적인 인과관계에 기초하는 서사적 연속성을 끊어놓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조연현이 지적한 『별과 같이 살다』의 단편소설적 편향은 충분히 이해될만한 것이다. 사실에 대해서 상징이 우위를 점할 때, 그 작품은 본질상 시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때 그 작품은 단편소설이든 장편소설이든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의 현저한 약화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가 이때 이러한 미학적 효과를 얼마나 의식적으로 추구하는가이거나, 작가의 주제의식이 이러한 형식으로 써어질만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5. 맷음말

『별과 같이 살다』를 이처럼 사실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한 상징주의 소설이라 할 때 이 작품이 이후의 그의 장편소설들과의 관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황순원의 이후 장편소설들이 부분적으로 상징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작품들은 대체로 허무주의적인 인간 탐구로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즉 그의 이후 작품들은 『별과 같이 살다』나 단편집 『목님이 마을의 개』가 갖는 상징주의적 경향을 상실하고, 향수의 시공간을 상실한 채 현실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 이는 분단과 전쟁의 영향이 이 월남작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음을 의미한다. 같은 시대에 활동을

43) 앞의 책, pp. 160-1.

하면서 같은 상징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도 김동리는 결과적으로 상징의 세계에 안착할 수 있었던 반면, 황순원이 이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월남작가이며,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그가 희구하던 현실의 이상화에 대한 좌절감이 훨씬 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탐구는 그러나 작가론의 영역이 될 것이다.